



[대한국사-윤승규]

2017년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책형)

총 평

2017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대략 세 문항 정도를 빼고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서울시 문제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2017년에 출제된 9급 국가직 문제의 출제 경향과도 맞물리는데 9급 문제는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시대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1문항, 고대사(삼국~남북국)에서 4문항, 중세사(고려)에서 1문항, 근세~근대 태동기(조선사)에서 5문항, 통합 2문항, 근현대사의 한말에서 3문항, 일제 강점기(독립운동)에서 3문항, 해방 이후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분류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를 포함한 정치사의 비중이 14문항, 경제사 1문항, 문화사 5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정치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문화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주제 중 어려운 부분은 진성왕 재위기의 사실을 묻는 문제, 경제두와 양명학 관련 문제, 조선 후기 역사서의 정통론 문제 등이었다. 쉬웠다고는 하나 최근의 출제 방식은 기출문제에 의존한 학습 방식으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출 문제 분석으로 최대 60~70% 정도의 출제 형식을 잡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신경향의 학습과 문제 풀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 유형 분석

분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
시대사					
선사	·부여				1
고대	·대가야 ·진성여왕대의 사실 ·발해			·무령왕릉	4
중세	·이자겸				1
근세 ~근대 태동기	·장길산	·경제생활		·경제두 ·조선 후기의 역사서 ·16C~17C의 그림	5
한말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동학 농민 운동 ·제1차 갑오개혁				3
일제	·연해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장 독립 투쟁				3
현대사	·6.25 전쟁				1
통합형	·고려·조선의 과거제도			세계 기록 유산	2
계	14	1		5	20

문제 및 해설

문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전모주가 천신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정답 ③

정답해설

자료의 밑줄 친 ‘이 나라’는 대가야이다.

- ③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허황옥과 혼인을 하였다고 전하는 인물은 금관국의 시조인 수로왕이다.

오답해설

- ① 대가야는 5세기 후반부터 금관가야의 김해 세력을 대신한 맹주로서 성장하였다.
② 대가야의 대표적 유적으로는 고령 지산동 고분 유적 등이 있다.
④ 6세기 초 대가야는 소백산맥 너머 남원군의 아막산성까지 진출하였으나, 백제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후 대가야의 이녀왕과 신라의 법흥왕은 결혼 동맹(522)을 체결하였다.

문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가감시는 국가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정답해설

- ㄱ. 고려시대에는 한·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 사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양대업 중에서도 제술업이 더욱 중요시되었다.(현전하는 합격생의 수 : 제술과 6700, 명경과 449)
ㄷ. 조선시대의 기술관과 서얼은 한품서용에 따라 참서관(정3품 하~종6품 하)까지 승진이 허용되었다(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들은 당상관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간혹 특례로 제수를 통해 당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답해설

- ㄴ. 고려시대의 국가감시는 초시 합격자들과 국가감생, 12도생, 현직 관리 등이 응시 하였으며, 합격한 자에게 본시험인 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가 정립되고 확대되면서 그 수혜 대상이 고려 시기의 5품 이상에서 2품 이상의 관리로 축소·하향되었다.

문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국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현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②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자료의 ㉠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양 1882. 5. 22.(음 1882. 4. 6.)]이다.

-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치외법권(4조)과 최혜국 대우(14조)를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청나라 이홍장의 주장에 의해 거중조정권(1조)이 명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조항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전락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의 결과 미 공사가 파견되었고, 조선에서는 양국 간의 친선을 위하여 보병사(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오답해설

- ①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은 1883년 11월 26일(음력 1883년 10월 27일)에 체결되었다.
② 1876년 8월 24일[음력 7월 6일]에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무역규칙)의 내용이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연미론이 대두하면서 청의 알선을 통해 체결되었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자 미국을 조선과 연결시키려 하였다.



문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원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양길이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정답해설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꾼 시기는 911년으로 당시 신라의 왕은 효공왕이다.

오답해설

③ 889년(진성여왕 3)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지금의 상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④ 891년(진성여왕 5) 10월에 양길이가 부하인 궁예를 동쪽으로 원정시켜 명주(지금의 강릉)까지 함락시켰다.

정답해설

7. 권업회(1911)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부를 둔 단체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㉔.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오답해설

ㄷ. 동제사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이 주도하여 1912년 상해에서 결성한 조직이다.

-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정답해설

④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통일신라의 재상은 상대등 1명,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 또는 시중 1명, 병부의 장관인 병부령(법흥왕 시기 1명, 진흥왕 때 2명, 무열왕 때 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가장 권한이 있는 상재상을 선정하여 재상 회의를 주도하였다.

오답해설

③ 상경용천부는 목단강 이북쪽과 서쪽을 에워싸고, 외성은 동서 4,650m, 남북 3,530m의 네모꼴로서 높이 4m의 토성으로 두르고, 중앙 북방에 다시 황성을 쌓았다. 또한 황성 남문에서 외성 남문까지 연결된 일직선의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경·우경으로 갈리고, 이것을 다시 여러 조방(條坊)으로 나누었다.

- 1568년 :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이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沖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을 가서 받았다.
-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정답해설

③ 이 관원이 노비에게 경작하게 한 토지는 자연지로서 논의 총 수확 83섬 전부가 주인인 이 관원의 소유이다. 즉, 소작인이 경작한 수확물이려면, 병작반수의 원칙에 따라 총 수확량의 절반을 주인에게 바치게 되지만, 노비가 경작한 수확물은 모두 토지의 주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전주전객제를 바탕으로 한 사적 수조권은 소멸하여 양반 지주가 농민들에게 직접 수조할 수 없었다.

오답해설

① 조창에서 운반한 세곡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경창에 보관하였는데 경창은 군자창·광흥창·풍저창으로 나누어졌다. 그 중 광흥창으로 운반한 세곡은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하였다.

② 16세기로 이행되는 시기부터는 토지가 많은 경우 그 주변의 농민에게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④ 조선 시대의 공장은 경공장, 외공장 등으로 분류되어 공장안에 이름을 등록하고 관청에 소속되었으며, 관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생산된 물량 중 책임량 초과분은 세를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 < 보 기 > —

ㄱ.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껍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exists$ ④ $\exists, \exists$

정답해설

제시문은 부여의 풍속에 대한 기록이다.

1.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國有君王 그 나라에는 국왕이 있고 皆以六畜名官 모두 여섯 가지 가축 이름을 관직명으로 하며, 有馬加牛加豬加狗加犬使犬使者 使者 유마가우가저가구가견사견사자가 있는데, 견사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나. 부여는 왕이 죽으면 백 여 명까지 순장하고 옥갑(玉匣)을 입혀 장사지낸 것으로 전한다.

오답해설

ㄷ.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나라에 큰 창고가 없으며, 집집마다 각기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름하여 부경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ㄹ. 옥저의 골장제(세골장)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목곽에 함께 안치하였다.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혁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③ 공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정답해설

제시문의 ‘이 내각’은 제1차 김홍집 내각으로, 이 내각에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추진한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1894. 7.~1894. 12.)이다.

② 제1차 갑오개혁에서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오답해설

① 갑신정변(1884) 14개조 정강의 내용이다.

③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1896~1904)의 내용이다. 광무개혁은 재정의 일원화에 역행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황실 재정을 분리시키기 위해 내장원을 설치하였다.

④ 관민공동회(1898. 10.)에서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이다.



- ① 이정익의 「풍죽도」
- ② 심사정의 「초충도」
- ③ 어몽룡의 「월매도」
-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①, ③, ④ 이정(1554~1626), 어몽룡(1566~?), 황집중(1533~?)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문인 화가이다. 이들은 한 가지 소재를 전문적으로 그려 명성을 얻었다.

퍼질 전 나는 공주 시대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④ 통일 신라의 굴식돌방무덤은 도교의 영향으로 12지 신상이 새겨진 돌레돌이 세워져 있다.

-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②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 ④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ㄴ. 1944년 5차 개헌에서 주식·부주식 체제가 신설되어 주식에 김구, 부주식에 김규식이 선출되었다.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찌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여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척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④ 묘청에 대한 설명이다.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한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궽정은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 ④ 몰락 양반의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④ 1811년 평안도 출신의 몰락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난을 일으켰다.

ㄱ. 일성록 나. 난중일기
ㄴ. 비변사등록 리. 승정원일기
ㄷ. 한국의 유교책판

- ① $\neg$, $\perp$
② $\neg$, $\perp$, $\rightleftharpoons$
③ $\neg$, $\perp$, $\rightleftharpoons$, $\square$
④ $\neg$, $\perp$, $\rightleftharpoons$, $\square$, $\circ$

㉔. 비변사등록(국보 제152호)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았다.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업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정답 ①

정답해설

사료의 내용은 주자를 비판하는 양명학에 대한 내용으로 정제두의 『하곡집』의 기록이다. 양명학은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주화론자인 최명길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18세기 정권에서 실각한 소론의 가학(家學)으로 형성되다가 정제두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이후 그의 집안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이른바 강화학파가 형성되었고, 이견창, 이견방, 박은식, 정인보 등 국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① 양명학은 인간이 상하 존비의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치양지설을 주장하며, 신분 계급 질서를 부정하고 평등을 지향했다. 또한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실천의 순간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앎과 행함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앎은 행함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지행합일설을 주장하였다.

오답해설

② 윤휴, ③ 송시열, ④ 최한기에 대한 설명이다.

문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ㄹ→ㄷ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ㄱ→ㄴ

정답 ①

정답해설

ㄱ. 훈춘사건(1920년 10월 2일) - ㄴ. 자유시 이동(1921년 1월 초) - ㄷ. 미쓰야 협정(1925년) - ㄹ. 한국독립군 조직(1940년)

문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 보 기 > —————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정답해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은 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한 채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여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전봉준은 농민의 자치 조직으로 집강소를 설치하고 총본부에 해당하는 대도소를 두었다. 또한 ‘동도창의소’를 발표하여 항일 투쟁을 위해 거병할 것을 촉구하였다.

ㄷ. 1894년 10월 동학 농민군은 2차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삼례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뒤 남접과 북접의 연합을 시도하였다.
ㄹ. 남·북접 연합군은 1894년 11월 9일부터 공주 웅치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와 결전을 벌였다.

오답해설

ㄱ. 황토현 전투는 1894년 3월 20일 전라감영군과 벌인 전투이다.
ㄴ. 1894년 5월 8일 동학농민군은 외국군 철수와 폐정개혁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문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조선을 정통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자 - 마한 - 신라 - 고려 태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단군에 대한 존숭은 홍만종의 모든 저술에서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도 고기(古記)를 참고해서 단군의 출생을 비롯하여 단군 이전의 사실과 단군의 치적 및 재위 기간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문 20.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25전쟁 발발	서울 수복	1·4 후퇴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체결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답 ①

정답해설

① 흥남 철수 작전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탈출한 작전이다.

오답해설

② 이승만 정부의 반공 포로 석방은 1953년 6월 18일에 실시되었다.
③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맥아더 장군은 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④ 1950년 1월 미국은 한반도와 타이완을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